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죽음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효과*

주 리 애**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죽는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에도 불구하고 죽음만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의식을 가지고 산다. 죽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예방법과 치료법이 발전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도 상당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생명의 연장이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으며 환자들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¹⁾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연장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여 말기 환자의 진료와 간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현대의학의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

비의 활용,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증가, 병원 시설의 전문화 및 대형화에 따른 병원 임종자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내 간호인력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말기 환자 진료가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²⁾

말기 환자들이 질병에 대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최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단지 질병의 치유와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동안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은 의료계 측의 문제 뿐 아니라 재가 복지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스피스(hospice)가 시행되고 있다.

호스피스란 질병의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마지막까지 충만하게 살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사회적, 신체적, 영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돌봐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³⁾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1999년)

** C.C.C.사랑의호스피스 책임자

1) 이용교, 「복지 리포트」(인간과 복지, 2000), 미간행.

2) 조현, 「우리나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 논문, 1993).

3)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현문사, 1995) p.122.

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치 않으며 나아가 자신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생각도 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⁴⁾ 그래서 임종환자들이 죽음을 예감할 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들과 함께 하기를 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지만 병원에 입원중인 대부분의 임종환자들은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다.⁵⁾ 대부분의 간호사들 또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⁶⁾

박혜자(1989)⁷⁾의 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때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나 갈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며 좀더 편안하게 자신의 질병을 수용하며 임종을 준비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죽음에 직면한 환자를 돌보게 되는 의료진이나 호스피스 봉사자들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견해가 정립되고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다각도의 도움이 필요한 임종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전후의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의식정도를 알아내어 자원 봉사자 교육이 죽음에 대한 성향 정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의 효과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호스피스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단기 교육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4) Kübler-Ross, E, 「On Death and Dying」(New York Macmillan Co, 1969), p.31.

5) 김정희, 「죽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료인의 태도조사 연구; 간호사와 의사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 이원희, 「가정호스피스 간호(Hospice Home Care) 서비스분석, 가정간호; 연구와 사업」, (가정간호 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간호연구소, 서울, 1995).

7) 박혜자, 「암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

K 광역시에 소재한 1개 호스피스 기관에서 시행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참여하여 20시간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말한다.

2) 죽음에 대한 성향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해 및 죽음의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Thorson과 Powell의 죽음에 대한 성향 측정도구를 박석춘(1991)⁸⁾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일부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 할 수 없다.

II. 조사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광역시에 소재한 1개 호스피스 기관의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182명 중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전과 후의 설문지를 모두 제출한 137명을 실험군으로 하였고, 일반대상자 80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21문항, 죽음에 대한 성향 25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8)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p.39~40.

1) 죽음에 대한 성향 측정도구

죽음에 대한 성향 측정은 Thorson과 Powell의 죽음에 대한 성향 도구를 박석춘(1991)⁹⁾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 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에 2점, 대체로 그렇다 에 3점, 거의 그렇다 에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4, 10, 11, 13, 16, 17, 21, 23, 25)은 역으로 점수를 주었다. 평균점수가 3.00이상은 죽음에 대한 성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2.00-2.99까지는 중간수준, 1.99이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에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교육 후에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K 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교육내용으로는 호스피스 개요, 철학 및 역사 2시간, 말기환자의 신체적 요구 2시간, 말기환자의 영적 요구 2시간, 암의 원인과 예방법 2시간, 호스피스 제공자의 스트레스 관리 2시간, 아동 호스피스 2시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 2시간, 호스피스와 관련된 윤리문제 2시간, 암세포와 나의 저항력 2시간씩 총 20시간으로 1주간에 실시하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을 말한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2월 21 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K광역시에 소재한 1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실시한 자원 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교육 전과 교육 후에 대상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Frequency,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 정도는 ANOVA로, 자원봉사자 교육 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 정도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대조군과

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조사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136명으로 대부분 차지했는데 이는 여성이 94.4%였던 이정애(1997)¹⁰⁾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대체적으로 생업, 즉 사회 활동이 적음으로 여유시간을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령에서는 20~29세가 118명(86.1%)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10명(7.3%), 30~39세가 5명(3.6%)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서는 대졸이상이 59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47명(34.3%)이고, 중졸이 2명(1.5%)의 순이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121명(8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13명(9.5%), 이혼 또는 별거가 1명(0.7%)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120명(87.6%)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11명(8.0%), 기타가 2명(1.5%)이고, 생활정도는 중이 113명(82.5%)으로 대부분이었고, 하는 19명(13.9%), 상은 2명(1.5%)이었다.

가족중 부가 생존하는 사람은 113명(82.5%)이었고, 모가 생존하는 사람은 129명(94.2%)이었으며, 현재 직계가족 중 암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은 120명(87.6%)이고, 직계가족 중에서 암을 앓고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7.3%)이었으며, 현재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은 116명(84.7%)이고, 본인이 질병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5명(10.9%)이었다.

최근 5년 이내에 직계 가족의 사망자 중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85.4%)이었고, 최근 5년 이내에 직계 가족 사망자중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7명(92.7%)이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친인척이 사망한 사람 중에서 친척인 경우는 68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22.6%), 아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21명(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62명(45.3%), 무종교가 43명(31.4%), 천주교가 20(14.6%)이었으며, 종교생활을 해온 기간은

9)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39~40.

10) 이정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10년 이상인 사람이 5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2년 동안이 19명(13.9%)이었으며, 3년에서 5년이 14명(10.2%)이었다. 종교적인 예배(집회)의 참석을 매주 하는 사람은 46명(33.6%)이고, 전혀 없는 사람은 45명(32.8%), 한 달에 2~3번 참석하는 사람은 16명(11.7%)으로 나타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73명(53.3%)이었다.

임종간호 봉사경험이 없는 사람은 12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1~6개월은 4명(2.9)이었으며,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는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받는 사람이 54명(39.4%)이었고, 영적 성숙을 위한 사람이 30명(21.9%), 신앙적 봉사를 위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사람은 19명(13.9%)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데 일반적 배경보다는 보다 영향력이 큰 동기부여(Motivation)의 작용이 뒤따르고, 남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종교적 측면인 신앙의 힘이라든가

〈표 1〉 일반적 특성

번호	특 성	구 분	실 수	%
1	성 별	① 남 자	1	0.7
		② 여 자	136	99.3
2	연 령	① 20세미만	2	1.5
		② 20~29세	118	86.1
		③ 30~39세	5	3.6
		④ 40~49세	10	7.3
		⑤ 50세이상	2	1.5
3	교 육 정 도	② 국 졸	1	0.7
		③ 중 졸	2	1.5
		④ 고 졸	47	34.3
		⑤ 대졸이상	59	43.1
		① 미 혼	121	88.3
4	결 혼 상 태	② 기 혼	13	9.5
		③ 이혼 또는 별거	1	0.7
		④ 사 별	1	0.7
		① 주 부	11	8.0
5	직 업	② 회사원	1	0.7
		⑤ 공무원	1	0.7
		⑥ 간호사	1	0.7
		⑧ 학 생	120	87.6
		⑨ 기 타	2	1.5
6	생 활 정 도	① 상	2	1.5
		② 중	113	82.5
		③ 하	19	13.9
		④	1	0.7
7	부 생 존 여부	① 생 존	113	82.5
		② 사 망	23	16.8
8	모 생 존 여부	① 생 존	129	94.2
		② 사 망	7	5.1
9	직계가족중 앓고 있는 가족	① 예	7	5.1
		② 아니오	120	87.6
		③ 모른다	10	7.3
10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	① 예	6	4.4
		② 아니오	116	84.7
		③ 모른다	15	10.9
11	최근 5년 이내에 직계 가족 사망자중 부모 사망자	① 있 다	18	13.1
		② 없 다	117	85.4
		(22)	1	0.7
12	최근 5년 이내에 직계 가족 사망자중 자녀 사망자	① 있 다	1	0.7
		② 없 다	127	92.7

〈표 1〉 일반적 특성(계속)

번호	특 성	구 분	실 수	%
13	최근 5년 이내에 친인척중 사망자	① 친 척	68	49.6
		② 가까운 사람	13	9.5
		③ 아는 사람	21	15.3
		④ 아무도 없다	31	22.6
		⑤ 기 타	4	2.9
14	종 교	① 기독교	62	45.3
		② 불 교	9	6.6
		③ 천주교	20	14.6
		④ 무종교	43	31.4
		⑤ 기 타	1	0.7
15	종교생활을 해온 기간	① 1년 미만	9	6.6
		② 1~2년	19	13.9
		③ 3~5년	14	10.2
		④ 6~10년	7	5.1
		⑤ 10년 이상	51	37.2
		⑥ 없 다	32	23.4
16	종교적인 예배(집회)의 참석 정도	① 매주	46	33.6
		② 한달에 2~3회	16	11.7
		③ 한달 내지 두달에 1회	10	7.3
		④ 1년에 4~5회	13	9.5
		⑤ 전혀 없음	45	32.8
17	구원에 대한 확신	① 있다	73	53.3
		② 없다	55	40.1
18	임종간호 봉사경험	① 없다	128	93.4
		② 1~6개월	4	2.9
		③ 7~12개월	1	0.7
		④ 25~36개월	1	0.7
		⑤ 그 이상	1	0.7
19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	① 단순히 교육만 받기 위해	9	6.6
		② 사회봉사를 위해	54	39.4
		③ 신앙적 봉사를 위해	19	13.9
		④ 영적성숙을 위해	30	21.9
		⑤ 기 타	24	17.5
20	학생의 경우 관련학과	① 간호학과	36	26.3
		② 간 호 과	79	57.7
		③ 비 간호관련 학과	10	7.3
21	간호학생인 경우 현 재학 학년	① 1학년	28	20.4
		② 2학년	34	24.8
		③ 3학년	50	36.5
		④ 4학년	3	2.2

봉사자 본연의 성품과도 관련있다는 이연숙(1995)¹¹⁾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생들 중에서 간호과 학

생은 79명(57.7%)이었고, 간호학과 학생은 36명(26.3%)이었으며, 간호학생인 경우 3학년이 50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34명(24.8%)이었으며, 1학년은 28명(20.4%)이었다.

11) 이연숙,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전·후 죽 음성향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전·후 죽음성향

정도를 비교한 것 중 교육 전은 결혼상태, 직업, 가족
사항 부가 생존여부,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 중
교생활을 해온 기간, 예배(집회) 참석 구원에 대한 확
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육 후에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전·후 죽음성향 정도

번호	특 성	구 분	교 육 전					교 육 후				
			실수	M	± SD	F	P	실수	M	± SD	F	P
1	성 별	① 남	1	4.46	0.59	0.711	0.401	1	1.88	0.45	0.891	0.347
		② 여	136	3.96	0.59			135	2.30	0.45		
2	연 령	① 20세미만	2	3.62	8.49	1.223	0.304	1	1.92	0.45	1.804	0.132
		② 20~29세	118	3.94	0.56			118	2.34	0.41		
		③ 30~39세	5	4.43	0.60			5	2.04	0.26		
		④ 40~49세	10	4.12	0.90			10	2.08	0.90		
		⑤ 50세이상	2	3.88	0.34			2	1.96	0.45		
3	교육정도	② 국 줄	1	3.64		0.663	0.577	1	1.32		1.795	0.153
		③ 중 줄	2	3.50	8.49			2	2.06	2.83		
		④ 고 줄	47	4.04	0.58			46	2.26	0.46		
		⑤ 대졸이상	59	3.97	0.66			59	2.32	0.46		
		① 미 혼	121	3.91	0.46			120	2.35	0.44		
4	결혼상태	② 기 혼	13	4.24	0.84	1.835	0.144	13	2.05	0.37	3.657	0.014
		③ 이혼 또는 별거	1	3.64	-			1	2.08	-		
		④ 사 별	1	3.64	-			1	1.32	-		
		① 주 부	11	4.17	0.86			11	1.87	0.32		
5	직 업	② 회사원	1	3.76	-	1.440	0.214	1	2.44	-	2.517	0.033
		⑤ 공무원	1	4.50	-			1	2.24	-		
		⑥ 간호사	1	2.82	-			1	2.00	-		
		⑧ 학 생	120	3.94	5.07			119	2.34	0.45		
		⑨ 기 타	2	4.35	0.10			2	2.20	0.45		
6	생활정도	① 상	2	3.66	0.14	0.469	0.704	2	2.06	0.54	0.655	0.581
		② 중	113	3.97	0.53			112	2.33	0.45		
		③ 하	19	3.93	0.91			19	2.20	0.45		
		⑧ 기타	1	4.50	-			1	2.24	-		
7	가족사항 부생존여부	① 생존	113	3.96	0.56	0.034	0.854	112	2.34	0.44	4.213	0.042
		② 사망	23	3.99	0.71			23	2.14	0.42		
8	가족사항 모생존여부	① 생존	129	3.96	0.59	0.295	0.588	128	2.32	0.44	1.355	0.246
		② 사망	7	4.09	0.60			7	2.21	0.42		
9	현재직계가족중 앓고 있는 가족	① 예	7	4.11	0.54	4.011	0.020	6	2.03	0.25	1.249	0.290
		② 아니오	120	4.00	0.59			120	2.32	0.45		
		③ 모른다	10	3.48	0.41			10	2.25	0.46		
10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	① 예	6	3.85	0.46	2.591	0.079	6	1.91	0.34	4.231	0.017
		② 아니오	116	4.01	0.59			115	2.35	0.45		
		③ 모른다	15	3.66	0.55			15	2.13	0.39		
11	최근 5년 이내에 친인척 사망자중 부모사망자	① 있다	18	3.87	0.63	0.361	0.698	18	2.20	0.43	0.482	0.619
		② 없다	117	3.99	0.58			116	2.31	0.45		
		22.	1	3.76	-			1	2.44	-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전·후 죽음성향 정도(계속)

번호	특성	구분	교 육 전				교 육 후					
			실수	M	± SD	F	P	실수	M	± SD	F	P
12	최근 5년 이내에 친인척 사망자중 자녀사망자	① 있다	1	2.82	-	3.813	0.053	1	2.00	-	0.424	0.516
		② 없다	127	3.98	0.59			127	2.30	0.46		
13	최근 5년 이내에 친인척중 사망자	① 친척	68	3.99	0.55	0.792	0.533	67	2.31	0.49	0.186	0.946
		② 가까운 사람	13	3.91	0.65			13	2.31	0.35		
		③ 아는 사람	21	4.12	0.84			21	2.22	0.46		
		④ 아무도 없다	31	3.84	0.43			31	2.32	0.41		
		⑤ 기 타	4	3.92	0.51			4	2.34	0.41		
14	종 교	① 기독교	62	4.22	0.69	7.533	0.000	62	2.18	0.47	2.257	0.067
		② 불 교	9	3.69	0.23			9	2.33	0.41		
		③ 천주교	20	4.01	0.50			20	2.44	0.37		
		④ 무종교	43	3.66	0.30			42	2.40	0.43		
		⑤ 기 타	1	3.64	-			1	2.08	-		
15	종교생활을 해온 기간	① 1년 미만	9	3.70	0.50	4.966	0.000	9	2.65	0.52	2.471	0.036
		② 1~2년	19	3.97	0.58			19	2.33	0.40		
		③ 3~5년	14	4.05	0.32			14	2.38	0.63		
		④ 6~10년	7	3.74	0.39			7	2.38	0.32		
		⑤ 10년 이상	51	4.23	0.72			51	2.15	0.41		
		⑥ 없다	32	3.66	0.27			31	2.30	0.39		
16	예배(집회) 참석	① 매주마다	46	4.36	0.71	11.312	0.000	46	2.10	0.37	4.380	0.002
		② 한달 2,3회	16	4.00	0.44			162	2.32	0.55		
		③ 한두달에 1회	10	3.77	0.37			10	2.60	0.41		
		④ 1년에 4,5회	13	3.90	0.44			13	2.43	0.40		
		⑤ 전혀없음	45	3.65	0.33			44	2.38	0.46		
17	구원에 대한 확신	① 있다	73	4.24	0.62	40.218	0.000	73	2.23	0.48	4.311	0.040
		② 없다	55	3.65	0.35			54	2.39	0.37		
18	임종간호 봉사경험	① 없다	128	3.95	0.59	1.139	0.341	127	2.33	0.45	1.692	1.156
		② 1~6개월	4	4.50	0.19			4	1.77	0.29		
		③ 7~12개월	1	3.56	-			1	2.08	-		
		④ 25~26개월	1	4.28	-			1	2.16	-		
		⑤ 그 이상	1	4.36	-			1	2.08	-		
		⑥										
19	호스피스교육을 받는 이유	① 단순 교육	9	3.59	0.25	4.433	0.002	9	2.50	0.66	1.580	0.183
		② 사회봉사위함	54	3.93	0.54			54	2.30	0.40		
		③ 신앙적 봉사	19	4.42	0.80			19	2.12	0.55		
		④ 영적성숙	30	3.95	0.56			30	2.39	0.37		
		⑤ 기 타	24	3.88	0.43			23	2.30	0.41		
20	관련학과 (학 생)	① 간호학과	36	4.00	0.75	1.042	0.356	36	2.16	0.53	9.053	0.000
		② 간호관	79	3.90	0.43			78	2.45	0.36		
		③ 비 간호관련	10	4.15	0.67			10	2.02	0.45		
21	재학 학년 (간호학생)	① 1	28	3.93	0.47	0.039	0.990	28	2.36	0.46	0.692	0.559
		② 2	33	3.93	0.41			33	2.39	0.42		
		③ 3	50	3.94	0.68			50	2.36	0.44		
		④ 4	3	3.83	0.35			3	2.01	0.27		

는 현재 가족 중 암을 앓고 있는 가족,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의 현재 직계가족 중 암을 앓고 있는 가족은 예(4.11)가 높게 나타났고, 아니오(4.00) 순으로 나타났다(F=4.011, P=0.020).

〈표 3〉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성향의 문항 분석

구분	문항	평균	순위
76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5.20	1
71	장례를 치른 후 내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4.75	2
78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	4.56	3
88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마음쓰지 않는다.	4.56	4
73	죽은 후에 내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	4.54	5
82	죽을 때 겪게되는 심리적 괴로움들이 겁난다.	4.50	6
79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	4.38	7
77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4.35	8
85	몸이 무덤속에서 부패될 것을 생각하면 언짢다.	4.33	9
87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	4.29	10
75	수술받는다라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	4.29	11
70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4.26	12
84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4.24	13
86	죽음 후에 올 많은 것을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4.24	14
81	죽은 후에 아무 것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4.22	15
72	관을 보면 불안하다.	4.19	16
68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	4.17	17
83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4.13	18
69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4.06	19
80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3.85	20
74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3.38	21
89	죽음으로써 모든 것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2.85	22
92	죽은 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쓰지 않는다.	2.22	23
91	죽은 후에 처리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남겨놓겠다	1.94	24
90	앞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	1.72	25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는 신앙적 봉사(4.4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적성숙(3.95), 사회봉사를 위해(3.93) 순으로 나타났(F=4.433, P=0.002).

교육후의 결혼상태에서 미혼이(2.3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 또는 별거(2.08), 기혼(2.05) 순으로 나타났(F=3.657, P=0.014).

직업에서는 회사원(2.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2.34), 공무원(2.24) 순으로 나타났(F=2.517, P=0.033).

가족사항 부의 생존여부 중 생존(2.34)이 높게 나타났(F=4.213, P=0.042).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2.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사람(2.25) 순으로 나타났(F=4.231, P=0.017).

중교생활을 해온 기간은 1년 미만(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년(2.38), 6~10년(2.38) 순으로 나타났(F=2.471, P=0.036).

예배(집회) 참석은 한두 달에 1회(2.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에 4~5회(2.43), 한달 2~3회(2.32)순으로 나타났(F=4.380, P=0.002).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2.39)가 높게 나타났(F=4.311, P=0.040).

이정애(1997)¹²⁾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 임종경험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석춘(1991)¹³⁾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성향 문항 분석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성향 문항 분석 중 상위 순에서는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12) 이정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13)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표 4〉 호스피스 교육 후 죽음성향의 문항 분석

구분	문항	평균	순위
31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3.18	1
44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	3.16	2
34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3.09	3
42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마음쓰지 않는다.	2.87	4
29	수술받는다는 생각은 하지조차 싫다.	2.80	5
45	죽은 후에 처리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남겨놓겠다	2.78	6
46	죽은 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쓰지 않는다.	2.53	7
36	죽을 때 겪게되는 심리적 괴로움들이 겁난다.	2.47	8
37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2.39	9
22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	2.38	10
25	장례를 치른 후 내몸에 어떤일이 생기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34	11
43	죽음으로써 모든 것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2.29	12
38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2.19	13
33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 싫다.	2.13	14
32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	2.09	15
40	죽음 후에 올 많은 것을 놓칠 것 같아서 마음이 걸린다.	2.08	16
41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	2.04	17
27	죽은 후에 내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	2.04	18
35	죽은 후에 아무 것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2.03	19
39	몸이 무덤속에서 부패될 것을 생각하면 언짢다.	2.01	20
24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1.84	21
26	관을 보면 불안하다.	1.85	22
28	죽으면 꿈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	1.74	23
23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1.61	24
30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1.60	25

(5.20%):'가 가장 많았으며, '장례를 치른 후 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4.75%).'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4.56%).'순으로 나타났고, '죽은 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쓰지 않는다(2.22%).' '죽은 후에 처리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남겨놓겠다(1.94%).'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1.72%)' 순으로 나타났다.

4. 호스피스 교육 후 죽음성향 문항 분석

교육 후 죽음성향 문항 분석중 상위순에서는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3.18)'가 가장 높았으며,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3.16).', '내세의 존재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표 5〉 죽음성향의 호스피스 교육 전·후 비교

	교육 전		교육 후		t	p
	M	± SD	M	± SD		
대조군 n=80	3.98	0.67	3.96	.69	-1.000	.320
실험군 n=137	3.97	0.59	2.30	0.45	-23.98	0.014
t	-.201		-21.431			
p	.369		.006			

(3.09).’는 순이었고, 하위순에서는 ‘죽으면 꿈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1.74).’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1.61)’,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죽음성향의 호스피스 교육 전·후 비교

죽음성향의 호스피스 교육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교육전(3.97)보다 교육후(2.30)에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호스피스 교육이 자원봉사자의 죽음 성향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t=-23.98, p=0.014$). 대조군은 교육전(3.98)인 같은 시간대와 교육후(3.96)인 같은 시간대에서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1.000, p=.320$), 대조군과 실험군에 있어서 교육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t=-21.43, p=.006$).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죽음 의식에 관한 조사를 한 박석춘(1991)¹⁴의 연구에서도 교육받은 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자원봉사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권장함으로써 죽음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호스피스 대상자를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대상자의 교육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의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광역시에 소재한 1개 호스피스 기관의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183명중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전과 후의 설문지를 모두 제출한 137명과 대조군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21문항, 죽음에 대한 성향 25

문항, 총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죽음에 대한 성향 측정은 Thorson과 Powell의 죽음에 대한 성향 도구를 박석춘¹⁵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전에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교육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K 광역시 소재하는 1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자원 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는 Frequency, ANOVA로, 자원봉사자 교육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대조군과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성향 정도 비교에서 현재 직계가족중 암을 앓고 있는 가족은 예(4.11)가 높게 나타났고($F=4.011, P=0.020$), 호스피스교육을 받으려는 이유는 신앙적 봉사(4.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4.433, P=0.00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 후 죽음성향 정도를 비교에서 결혼상태에서 미혼이(2.35) 가장 높게 나타났고($F=3.657, P=0.014$), 직업에서는 회사원(2.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F=2.517, P=0.033$). 가족사항 부의 생존여부 중 생존(2.34)이 높게 낮고($F=4.213, P=0.042$),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2.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4.231, P=0.017$), 종교생활을 해온 기간은 1년 미만(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F=2.471, P=0.036$). 예배(집회) 참석은 한 두달에 1회(2.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4.380, P=0.002$).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2.39)가 높게 나타났고($F=4.311, P=0.040$).
3. 호스피스 교육 전 죽음성향 문항 분석 분석중 상위순에서는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5.20).’가 가장 많았으며, ‘장례를 치른 후 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

14)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5)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1991), p.39~40.

다(4.75).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4.56). '순으로 나타났고, '죽은 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쓰지 않는다(2.22). '죽은 후에 처리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남겨놓겠다(1.94).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1.72)' 순으로 나타났다.

4. 호스피스 교육 후 죽음성향 문항 분석 분석중 상위순에서는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3.18)'가 가장 높았으며,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3.16).', '내세의 존재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3.09). '는 순이었고, 하위순에서는 '죽으면 끔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1.74).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1.61)',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1.60). '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죽음성향의 호스피스 교육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교육전(3.97)보다 교육후(2.30)에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호스피스 교육이 자원봉사자의 죽음 성향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t=-23.98$, $p=0.014$).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처하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것이 확인된바 모든 사람에게 확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제언

- 1) 죽음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을 증대하는 도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대상자의 죽음에 대

한 성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것이 확인된 바 모든 사람에게 복지교육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한 형태로 확대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계층의 폭넓은 교육기회를 주어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본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남성모병원 간호부 호스피스과, 「호스피스」, 강남성모병원, 1990.
 김수지, 「호스피스봉사자의 자질, 자원봉사자의 길잡이」,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1998.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5.
 이용교, 「복지 리포트」, 인간과 복지, 2000(미간행).

간행물

- 김정희, 죽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료인의 태도조사 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1990.
 김영자, 박재순, 호스피스개요, 대한간호, 1984.
 김영환, 죽음에 대한 사목적 배려, 전망(31), 1975.
 권혜진, 임종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중앙의학, 52(11):723, 1987.
 박순주, 최순희, 간호사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과 임종간호 수행정도, 기본간호학회지, 1996.
 소의숙, 조경자, 호스피스 간호가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1(3):, 1991.
 송혜향, 호스피스간호에 대한 연구 방법론, 호스피스논집 제2권,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교육 연구소, 1997.
 이경식, 종합병원에서의 호스피스케어, 대한간호(23), 1984.
 이경식,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과거 현재 미래, 호스피스논집 제3권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교육 연구소, 1998.

이길홍, 죽음학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의 과학 제 12권 제 2호, 1980.

이원희, 가정호스피스 간호(Hospice Home Care) 서비스 분석, 가정간호, 연구와 사업, 가정간호 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간호 연구소, 서울, 1995.

이은숙,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이희, 의대생 및 전공의가 보여준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학, 1979.

이효경,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한양대 의대학위 논문, pp. 2(미간행). 야휴백과사전(2000), 1984.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임종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대한간호」, 제13권, 제2권, 1974.

정달용, 철학적으로 본 죽음, 사목(70), 1980.

최혜자, 간호원 및 간호학생들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조사 연구, 「간호학 회지」, 5(1), 1975.

한성숙, 호스피스개요, 대한간호, 27(1) :, 1988.

논문 및 기타

김영순, "말기암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김혜자, "호스피스교육", 성모병원 호스피스과, 1994.

문영임, 박재순, 양수, 유양숙, 박선남, "호스피스 논집 (1)", 카톨릭대학 간호대학, 1996.

민행자, "Hospice Unit 이용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박석춘, "호스피스 지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사랑의 호스피스, "호스피스교육", C.C.C.사랑의 호스피스 교재, 1999.

서영준,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심경주, "호스피스가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정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1997. 석사학위논문.

염창환, "의료기관 형태별 말기암환자의 치료비용과 삶의 질 비교", 한국호스피스협회 1999년도 세미나, 1999.

장미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대 교육심리학과 학위논문, 1981(미간행).

정기화, "호스피스 및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사 및 의사의 태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조현, "우리나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논문, 1993.

최경희, "죽음 및 hospice care에 대한 견해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상옥, "한국의 호스피스 운영실태와 그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최상옥, "한국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학위논문, 1994.

최화숙, "한국 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1999.

크로스사랑선교회, 「호스피스 단기 교육 교재」, 1999.

태영숙,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 1999년도 세미나 및 정기총회」, 1999.

황은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미간행).

외국문헌

Kü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성영역, 분도출판사, 1990.

Stoddard, S, The Hospice Movement, New York : Stein & Day, 1978.

Adams, A. B, Dilemmas of Hospice, American Cancer Society, 1985.

Caperson, D, Family Perception of Hospice Care, The American J. of Hospice Care, 1985.

Cohen, K.P. Hospice-Prescription for Terminal Care, Aspen System Corporation. 1979.

Datricia E. Greene, The pivotal role of the nurse in hospice care, ACS professional education american cancer society, 85-50M-No. 3441-PE, 1985.

Franco,V.W, Reverence for the Humanity of the Dying, Aspen System Corporation, 1979.

Jack Makay Zimmerman(Ed), Hospice care as a response to the problems of terminal illness, hospice-complete care to the terminally ill, urhen & schwarzenbery, Maryland, 1986.

Kenneth P. Cohen, Hospice-prescription for terminal care aspen systems corporation, Maryland, 1979.

Lack,S, First American Hospice, New Heaven Hospice, 1978.

Laveren,E.P. and Margaret,M, Public Knowledge of Hospice Care, Nursing Outlook ,1981.

Lenora Finn Paradis, The Development of Hospice in America : A Social Movement Organizes, Hospice Handbook, p.19, Aspen. Publication, 1985.

Mark de St. Aubin, A Critical Test of specific Hospice Objective for Family Caregivers. The Hospice Journal, 2(2), 1986.

Mount,M.M, Whither Hospice Evaluation.J.of chroic Disease. 36(11), 1983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dequacy and need for hospice sinice in hawaii, depatment of heath state of hawaii, 1981.

Abstract

The Effects of Hospice Training on the Volunteer's Attitudes toward death

Ju Ree-Ai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the popularization of hospice services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influences of hospice training on participants. We compared differences of attitudes

* Advisor : Prof. Kim Hwang-yong. Ph. 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yang Sang Kwangju University

toward death between those of pre-training and post-training by use of questionnaire.

This study involved 137 volunteers participating in the hospice training held by one hospice center located in K-cit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46 items, 21 items of general information and 25 items of information about attitudes toward death. We applied Park's translated version(1992), originally distributed by Thorson and Powell (1988), in the assessment of participants' changed attitudes toward death.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hospice training. The data were analged by frequency. ANOVA t-test, paire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re-training items holding a high rank were 'The subject about the future life after death is distressing'(F=5.20), 'No worry about any occurrences around the body after a funeral'(F=4.75), 'Having little interest in being laid in a coffin after death'(F=4.56); items holding a low rank were 'Having little interest in any occurrences around the body after death'(F=2.22), 'Willing to deal with the aftermath of the death in detail'(F=1.94), 'No fear to have an idea to be cancerous'(F=1.72).
2. Post-training items holding a high rank were 'No fear to be dead as a result of sufferings from long-lasting illness'(F=3.18), 'No fear to have an idea to be cancerous'(F=3.16), Having little interest in the future life after death'(F=3.09); items holding a low rank were 'Unpleasant to be not able to move after death'(F=1.74), 'Distressing not to know about the future life after death'(F=1.61), 'The subject about the future life after death is distressing'(F=1.60).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death. Compared with pre-training($F=3.97$), more positive were developed in post training($F=2.3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spice training renders positive regards toward death to the participants. Therefore every human being, who is able to speculate about the meaning of death, has to be exposed to the hospice training. In conclusion, hospice training should be popularized in the near future.